

## 도시의 기괴한 춤 공간

- 다다이즘(dadaism)을 이끈 카바레(cabaret)가 한국의 유흥 춤 공간으로 변모되는 과정\* -

김 주 희\*\*

I. 서론

II. 다다이즘을 이끌었던 서구사회에서의 카바레

III. 퇴폐 춤 공간으로 인식되는 한국의 카바레

I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 I. 서론

본 연구는 프랑스에서 시작되어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를 거치면서 20세기 다다이즘(dadaism)<sup>1)</sup>을 이끈 모태 문화공간이었던 카바레(cabaret)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퇴폐의 춤 공간으로 인식되는 과정을 추적하는데 목적이 있다. 유럽에서는 카바레 공연을 하는 전문 공연장이나 카바레티스트(cabaretist)들이 여전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질 낮은 댄스유흥업소 정도라는 선입견만 있을 뿐이다. 이러한 선입견에 대해 정민영(2007)은 공연 예술장르로 한국의 카바레가 존재하지 못하게 된 이유라고 지적하였으며 정현경(2014)은 카바레에 대한 진지한 학문적 논의를 가로막았다고 설명한다.

국내에 소개된 카바레와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모두 유럽에서의 카바레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었다. 정민영(2007)은 『카바레-자유와 웃음의 공연예술』에서 독일의 공연예술로서의 카바레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예술가들과 극단을 소개하였다. 리사 아피냐네시(2007)의 번역서 『카바레-새로운 예술공간의 탄생』은 유럽 전역 외에도 미국까지 유행했던 카바레를 두루 설명하고 아방가르드 예술가들의 도전적인 실험무대이자 도덕과 정치, 문화를 비판적으로 풍자했던 저항의 무대로서 그 역사를 조명하고 있었다. 그리고 정현경(2014)의 「예술장르로서의 카바레 연구」는 다다이즘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스위스의 카바레 활동을 집중적으로 다루었고, 조수진(2016)은 「미래주의, 다다 퍼포먼스에 나타난 바리에

\* 본 논문은 2019 IFTR에서 발표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성균관대학교 하이브리드미래문화연구소 학술연구교수, sunjang33@gmail.com

1) 이미지를 모방하여 최대한 유사하게 그려내는 19세기 미적담론에서 벗어나 새롭게 변화시킨 아방가르드 예술운동이다. 이 예술운동은 초현실주의 선언문이 나오기 전까지 유럽에 널리 퍼져 예술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켰으며 표현주의, 큐비즘(입체주의), 미래주의와 상호 연관성을 지닌다. 피종호(2004), 다다이즘과 추상적 해체예술의 이미지, 『카프카연구』 11, pp.299-300.

테와 카바레의 문화정치」를 통해 미래주의와 다다의 퍼포먼스가 19세기 말부터 시각 예술과 밀접한 관련을 맺었다는 것에 주목하여 ‘연극’의 특수한 한 양상을 띄고 있는 바리에테(Variété)와 카바레를 논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의 연구를 기초 삼아 일본과 한국의 카바레까지 확장하여 살펴보고, 서양과는 다르게 춤추는 공간으로 변모되는 과정을 중점적으로 보고자 하였다.

2장에서는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일본을 중심으로 카바레의 발생 과정과 각 나라의 특징적 면모를 파악해 보았다. 일본의 카바레 문화를 함께 살펴보는 이유는 한국의 유흥문화가 일본의 영향으로 인해 부정적 이미지로 전환되었다는 전제를 갖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견은 백운인(2018)의 『변안사회』에서도 간략하게 논의된 바 있다. 3장에서는 한국사회에서 퇴폐의 춤 공간으로 인식되는 두 번째 요인으로 언론매체 및 영상매체가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가정을 갖는다. 카바레라는 키워드를 통해 1930년대부터 1980년까지 신문기사 내용을 분석해 보고 다양한 매체에서는 카바레를 어떠한 양상으로 그려내는지 살펴 보았다.

연구에 앞서 N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신문 뉴스 라이브러리 검색 가능 기관인 『동아일보』, 『경향신문』, 『매일경제』, 『한겨레』 기사를 중심으로 검색되었다는 점에서 한계점이 있음을 밝힌다. 그리고 가독력을 위해 오늘날의 표기 방식에 맞게 띄어쓰기를 임의로 수정하였다.

## II. 다다이즘을 이끌었던 서구사회에서의 카바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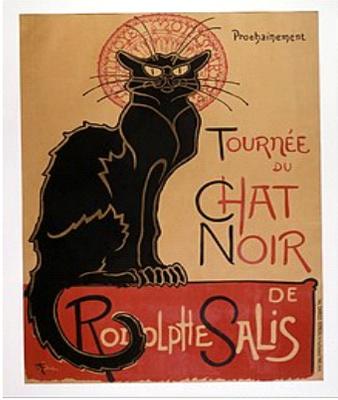
### 1. 카바레의 발생과 발전 과정

가벼운 볼거리가 제공되는 술집 형태는 중세시대부터 있어 왔지만, 여러 음식이 섞이지 않게 한꺼번에 담을 수 있는 카바레라고 불리는 접시에 식사와 와인을 함께 제공해 주면서 카바레라고 불렀던 19세기 프랑스 선술집에서 그 원류를 찾을 수 있다.<sup>2)</sup> 이곳에서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았던 손님들이 공짜 식사와 술을 얻어먹기 위해 다른 지역에서 일어난 최근의 소식과 사건들을 즉흥 공연방식으로 전하면서 이러한 선술집들을 카바레로 지칭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가수, 배우, 곡예사, 마술사, 시인 등의 무대 공연을 즐기면서 식사하는 예술과 유흥이 혼합된 형식은 로돌프 살리(Rodolphe Salis(1851-1897)가 1881년 11월 18일 프랑스 몽마르트 언덕에 ‘검은 고양이(Chat noir)’를 열면서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었다.<sup>3)</sup> 다음 해에 살리는 같은 이름의 잡지 『샤 누아르』를 창간하여 다다이즘 예술에 큰 영향을 끼쳤던 풍자문학가 알퐁스 알레(Alphonse Allais, 1854-1905) 논평 뿐 아니라 풍자의 내용을 갖는 그림, 시, 노래, 단막극을 신는다. 이곳은 반골 예술가들 외에도 부르주아 계층의 호기심을 자극하였으며 중산층들에게도 큰 인기를 끌게 되면서 점차 하층민까지 관객으로 모여들게 되었다.<sup>4)</sup> ‘검은 고양이’의 성공으로 인해 이와 비슷한 카바레들이 몽마르트 주변에 여러 곳 생겨나게 되었다. 프랑스의 카바레는 대중적이고 말초적인 버라이어티 공연에서 벗어나 사회 비판적 논의 공간의 초석이었던 것이다.

2) 정민영(2007), 『카바레-자유와 웃음의 공연예술』(서울: 유로서적), p.15.

3) 앞의 책, pp.25-26.

4) 박은정(2014),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나타난 ‘카바레 송’의 분석과 연주적 해석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9.



〈그림 1〉 ‘샤 누아르’ 광고 포스터<sup>5)</sup>



〈그림 2〉 ‘카바레 볼테르’ 개장 광고 포스터<sup>6)</sup>

프랑스와 비슷한 시기에 독일에서도 버라이어티 쇼를 보면서 식사와 술을 즐기는 ‘바리에테’가 생겨났다. 프랑스의 카바레가 예술인 중심이었던 것과는 달리 이곳은 수공업자나 노동자와 같은 하층민들이 주된 관객이었다. 1890년대 들어서 오토 율리우스 비어바움(Otto Julius Bierbaum)과 에른스트 폰 볼초겐(Ernst von Wolzogen)은 예술적 수준의 독일 카바레 극장을 만들려고 하여 1901년 베를린 알렉산더 광장에 최초의 카바레 ‘다채로운 극장(Buntes Theater)’을 개관하였다.<sup>7)</sup> 다채로운 극장은 오락만에 치중되어 있었던 카바레 방식에서 벗어나 시대 비판적인 풍자시, 문학작품의 패러디, 판토마임, 단막극, 인형극, 그림자극, 유머가 담긴 낭독, 에로틱한 샹송과 춤 등의 다양한 공연이 제공되었다.<sup>8)</sup> 독일 카바레 특징은 즉흥성이 돋보였던 프랑스의 카바레 공연에 비해 완성된 텍스트를 기초로 하는 드라마적 레뷰의 형식의 경향을 보였으며, 규모가 더 커진 무대 위에서 전통적 사고방식과 시대에 뒤떨어진 도덕관을 비판하였고 패러디 강한 작품을 선보였다.<sup>9)</sup>

이후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나치의 검열은 풍자와 패러디를 기본으로 하는 카바레의 위기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로 인해 카바레는 오스트리아와 스위스로 이동하게 되고, ‘다채로운 극장’을 모티브 삼아 1901년 작가이자 비평가 펠릭스 잘텐(Felix Salten)이 ‘사랑하는 아우구스틴을 위한 젊은 빈 극장(Jung-Wiener Theater zum lieben Augustin)’을 창단하게 되었다.<sup>10)</sup> 이곳에서의 공연은 독일 카바레에 근거를 두고 만들어졌지만, 외곽 주변에 만들어져 익살스러운 공연을 주로 올렸던 ‘민중 극장(Wiener Volkstheater)’의 영향을 받아 가벼운 유머가 중심을 이루는 오스트리아 만의 독특한 개성을 지닌 카바레 문화를 형성하게 되었다.<sup>11)</sup>

하지만 나치의 검열은 더욱 심해지고 이를 피해 1916년 독일의 시인 후고 발(Hugo Ball)과 여배우 에이미 헤닝스(Emmy Hennings)는 스위스 취히리에 ‘카바레 볼테르(Cabaret Voltaire)’를 만드는데

5) <[https://en.wikipedia.org/wiki/Le\\_Chat\\_Noir](https://en.wikipedia.org/wiki/Le_Chat_Noir), 2019. 8. 15.>.

6) <[https://en.wikipedia.org/wiki/Cabaret\\_Voltaire\\_\(Zurich\)](https://en.wikipedia.org/wiki/Cabaret_Voltaire_(Zurich)), 2019. 8. 15.>.

7) 정민영(2005), 독일어권 카바레 연구(2)-카바레의 구성과 기능, 『브레히트와 현대연극』 13, p.350.

8) 정민영(2004), 독일어권 카바레 연구(1)-카바레의 개념 및 발달사, 『브레히트와 현대연극』 12, p.350.

9) 앞의 책, p.352.

10) 정민영(2004), pp.354-256.

11) 정현경(2014), 예술장르로서의 카바레 연구, 『세계문화비교연구』 48, pp.273-275.

이 무대는 다다이즘을 촉발시킨 근거지가 된다. 공연 특징은 소음을 사용하고 가면 실험극과 극단적으로 관습을 거스르는 의상과 기이한 춤을 선보였으며 선입견, 전통에서 벗어나 관객들의 참여를 부추겼다.<sup>12)</sup> 예술 장르의 고립을 탈피하고 예술가들 간의 공동 작업을 통해 장르를 결합하여 집단적 소통을 추구했던 카바레 볼테르는 모더니스트들에게 제한과 한계가 없는 최고의 예술 공간이었다.<sup>13)</sup> 미래주의자와 다다이스트들은 의도적으로 당시 대중적인 오락 공연이었던 바리에테와 카바레를 예술적 표현 수단으로 도입했으며 이러한 의도를 공공연하게 직접적으로 밝혔다는 것에서 의미가 있다.<sup>14)</sup> 미래주의와 취리히 다다 운동을 주도했던 필리포 토마소 마리네티(Filippo Tommaso Marinetti)와 휴고 발 등은 오락을 향유하는 것이 현대적 삶의 본질을 만들어 낸다고 보았으며 카바레 안에서의 예술 활동을 통해 기성 예술과 관습에 도전하였다.<sup>15)</sup> 결국 웃음을 통한 시대 성찰과 공연장르 간의 경계 허물기, 관객과의 소통은 예술적 오락물의 전위행위가 근대로 견인하는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sup>16)</sup>

## 2. '카바레 볼테르'에서 시도된 춤

'카바레 볼테르'에서 추어진 춤은 당시 19세기 말부터 등장했던 현대춤과 함께 매우 색다른 시도를 추구하였다. 먼저 흑인 무용수가 무대에 기존 예술에 대한 저항의 표현으로 등장한다는 점에서 특이점을 갖는다.<sup>17)</sup> 당시 전위 예술가들에게 원시적인 야만성은 미학을 거부하는 다시 말해 예술과 대립되는 삶의 새로운 한 측면으로 여겨졌기에 흑인의 문화가 반 예술의 핵심 전략으로 도입되었던 것이다. 아프리카 부족의 마스크 같은 안코의 가면을 착용한 무용수들이 흑인 리듬(negro rhythms)에 맞춰 춘 격렬한 몸짓 흑인 무용(negro dance)은 원시적 제의에 나타난 몸의 수행성을 통해 예술을 삶의 영역에 위치시키려 했던 시도였다.<sup>18)</sup>



〈그림 3〉 소피 타우버의 춤과 의상<sup>19)</sup>

12) 정현경(2014), p.283.

13) 앞의 책, p.292.

14) 조수진(2014), 미래주의, 다다 퍼포먼스에 나타난 바리에테와 카바레의 문화정치, 『현대미술사연구』 40, p.180.

15) 앞의 책, p.180.

16) 앞의 책, p.180.

17) 앞의 책, p.198.

18) Rebecca Schneider, *The Explicit Body in Performance*(London and New York:Routledge, 1997), pp.141-144; 조수진, p.198 재인용.

19) <<http://artjournal.collegeart.org/?p=4680>, 2019. 8. 15.>; <<https://frieze.com/article/mad-world-0>, 2019. 8. 15.>.

전통적인 발레에서 해방된 표현주의 춤의 대표작품인 「마녀의 춤」(1914)의 안무가 마리 비그만(Mary Wigman)도 카바레 볼테르에 종종 초대되었으며, 소피 타우버(Sophie Taeuber)가 무용수들과 함께 순전히 몸의 움직임만으로 이뤄지는 ‘추상 무용(abstract dance)’을 소개하기도 했다.<sup>20)</sup> 〈그림 3〉에서 타우버와 그녀의 동생 에리카 쉘겐(Erical Schegel)이 입은 의상은 다다이스트 호피(Hopi)가 아메리카 원주민을 주제로 만든 의상을 입은 것으로 카바레 볼테르의 실험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sup>21)</sup>

유튜브에 게시된 1916년 카바레 볼테르 춤 공연 영상<sup>22)</sup>을 보면 반주자의 피아노 뒤에 숨어있던 3명의 연주자가 익살스럽게 등장하는 장면은 기존의 무용예술 무대와는 크게 구분되는 지점이다. 이 연주자들은 그리스 튜닉을 입은 여자 무용수 2명이 등장하자 피아노 뒤에서 차례로 나와 무용수들을 바라보며 짧게 콜라보레이션을 이뤘다가 무용 무대로 전개 시킨다. 이러한 무대방식은 20세기 초 감정의 자유로운 표현을 과감하게 드러냈던 이사도라 던컨(Isadora Duncan)이나 로이 풀러(Loie Fuller)의 춤 형식과는 매우 구분되는 지점이지만 의상은 비슷한 스타일을 갖추고 있다. 이 무용수들의 움직임은 표정과 감정을 최대한 배제하고 거울과 같이 동작을 구사하고 있어 오스카 쉘레머(Oskar Schlemmer)의 「삼화음 발레」에서 발견되는 움직임 면모를 볼 수 있다. 장르 간의 소통을 유도하는 무대 구성 방식과 감정을 배제한 새로운 움직임, 인식에 대항하는 저항적 태도는 포스트모더니즘 예술의 모태로 파악할 수 있겠다.



〈그림 4〉 카바레 볼테르에서의 춤 공연<sup>23)</sup>

### 3. 일본의 카바레

카바레가 어떻게 일본에 소개되었는지 그 경위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서구의 카바레 모습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보급되었다. 카바레 외에도 빠르게 유입되는 카페, 살롱, 댄스홀, 도쿠로(トルコ)<sup>24)</sup> 등은 이국식 문화와 일본문화가 결합되어 그 본연의 성격과는 매우 다른 공간들을 만들어 내었다. 무엇보다도 일본 안에서 카바레라는 단어가 도드라지게 알려지게 된 계기는 패전 이후 일본 정부가 직접 나서 주둔한 미군을 위해 만든 미군용 위안시설 중 춤추는 장소를 카바레라고 부르면서이다.

전쟁의 막바지에 이르자 일본 정부는 “전쟁에 패배하면 여성이 미국인의 첩이 될 각오를 해두라”는 악의적인 선전책으로 자국민의 충성을 내몰았다.<sup>25)</sup> 이러한 선동으로 인해 일본 사회는 2차 대전 종전 후

20) 조수진(2014), p.198.

21) Frieze(2015. 12. 8.), <<https://frieze.com/article/mad-world-0>, 2019. 8. 15.>.

22) 카바레 볼테르에서의 춤 공연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fk192oV1kMc>, 2019. 8. 15.>.

23) <<https://www.youtube.com/watch?v=fk192oV1kMc>, 2019. 8. 15.>.

24) 목욕을 도와주는 여성 도우미가 있는 목욕 시설.

25) 김도형(2011. 8. 14.), 일본, 패전하자마자 위안부 모집했다,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491661.html>, 2019. 8. 15.>.

여자들에게 남장(男裝)을 시켜야 한다는 유언비어가 나돌 정도로 두려워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불안으로 인해 종전 선언 4일 만에 내무성 관료가 입안하고 대장성의 예산지원으로 조직된 성접대 관련 조직 ‘특수위안시설협회(RAA, Recreation and Amusement Association)’가 만들어졌다. 외국인을 상대할 접대부 모집을 위해 신문광고와 시내 변화가에 광고판을 내 걸 정도로 국가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은 것을 보면 이 당시 일본 사회 분위기가 대단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국가적 사업에 희생할 애국적 여성 급히 구함. 의식주 제공. 고수입 보장. 여비 지급”이라는 광고는 전쟁에서 남편을 잃은 미망인들이나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게 된 딸 외에도 궁핍한 생활로 인해 살기 힘든 여성까지 몰려 하루에 3백 명이 응모할 정도였으며 모집된 여성 규모만도 5만 5천 명에 이르렀다. 당시 이 여성들은 팡팡걸(パンパンgirl)이라고 불렸다. 여기서 팡팡은 불어식 발음 표현 처럼 느껴지지만 중국에서 창기(娼妓)를 팡팡놀랑(伴伴女郎)이라고 부른 것에서 기인한다. 전쟁 시기 중국대륙으로 유입된 일본인들이 중국어를 영성하게 인식하면서 중국어 팡팡과 영어식의 걸(girl)이 결합 된 것이다.<sup>26)</sup>

국가가 주도한 이러한 위안 시설은 3개월이 채 되기도 전에 도쿄에만 25개 시설이 들어섰으며 오사카, 요코하마, 나고야 등 미군이 들어오는 항구와 하코네, 아타미 등 온천휴양지대 그리고 부대 있는 곳에는 어디건 빠짐없이 설치해 나갔다.<sup>27)</sup> 1945년에 동경에 생긴 카바레는 일본식 발음의 카바쿠레(Kabakure (キャバクラ)로 불리게 된다. 이러한 시설 안에 만들어진 카바쿠레 안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초석이 되었던 다다식의 문학 공연이나 사회, 정치의 문제를 해학과 풍자로 만들었던 다양한 노래, 만담 등이 재연될 리 없었다.<sup>28)</sup> 서양의 카바레와는 다르게 일본의 카바레는 시대를 풍자했던 예술의 면모는 모두 사라지고 주둔한 미군을 위해 향락적인 춤 공연과 춤을 출 수 있는 댄스홀만 남게 된 것이다.

### III. 퇴폐 춤 공간으로 인식되는 한국의 카바레

#### 1. 신문기사에서의 카바레

한국에서는 서양 사회의 새로운 문화를 소개하는 신문기사 등을 통해 1930년대부터 카바레라는 단어가 등장한 것을 보면 상당히 빨리 소개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동아일보』 1930년 9월 2일 자에는 일찍이 독일로 유학을 갔던 도유호<sup>29)</sup>가 카바레를 신기한 이방인의 시선으로 전하고 있다.

“ 歐洲行(구주행) (一(일)) 印度洋(인도양) 건너서서 뎀버볼가□□ ‘□□아나카바레 | ’의 □구경을 한 이튿날은 빠쓰로 □□□ □구경합니다”<sup>30)</sup>

26) 한겨레 필진 네트워크(2007. 3. 27.), 팡팡걸, 양공주, 아베,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99042.html](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99042.html), 2019. 9. 9.>.

27) 김중걸(2018. 4. 14.), 일본, 자국민도 미군에 위안부로 팔아넘겨, 『더 아시안』, <<http://kor.theasian.asia/archives/186805>, 2019. 8. 15.>.

28) 백운인(2018), 『번안사회』(서울: 휴머니스트), p.306.

29) 도유호(1905-1982) 북한의 역사학자. 함경남도 출생. 8·15 광복 전에 독일로 유학하여 독일 여성과 결혼했다. 귀국 후 1947년 김일성종합대학교 교수 및 고고학연구소 소장에 임명되었다.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207051&cid=40942&categoryId=39766>, 2019. 8. 15.>.

30) 도유호(1930. 9. 2.), 歐洲行(구주행) (一(일)) 印度洋(인도양) 건너서서, 『동아일보』, 제3면.

『동아일보』 1936년 1월 30일 자에 전무길이가 연재한 滿洲走看記(만주주간기)에서는 러시아로까지 퍼진 카바레의 분위기를 전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도유호의 글과는 다르게 카바레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亂舞(난무)의 國際都市(국제도시) 그러나 ‘판타이저’나 ‘카스페크’나 其外(기외)에 無數(무수)한 ‘카바레’나 ‘댄싱홀’에서는 이 貴重(귀중)한 鍾(중)소리를 逆用(역용)하여 一齊(일제)히 붉은 술잔 푸른술잔을 높이 쳐들며 歡呼(환호)한다... 틀스토이를 낳은 민족답지 않게 춤, 나체 춤, 음란함은 못 볼꼴...”<sup>31)</sup>

해방 이후 카바레와 관련된 기사는 서구의 별난 볼거리로 바라보는 소개 정도에서 벗어나 경계 장소로 전해지게 된다. 『동아일보』 1945년 12월 27일자 사회 1면에 실린 사설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적고 있다. 이 글에서는 카바레를 ‘풍기괴란’, ‘범죄발생의 온상’, ‘오락의 본질’ 등의 단어를 들면서 카바레가 점점 늘어가는 것에 대해 경찰 당국의 단호한 숙청을 요하고 있다.

“風紀肅清(풍기숙청) 象(현)이고 카바레와 댄싱홀은 漸日(점일)늘어 만가고 잇스니 그程度(정도)지나친 感(감)이 없지 안 한 것이다 勞役(노역)의 疲勞(피로)를 一盃(일배)의 술노플고 沈(심)□한 氣分(기분)을 한거리의 춤으로 이지버...”<sup>32)</sup>

이 기사에서 처럼 카바레에서의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음을 『동아일보』 1946년 2월 20일자 ‘料理店(요리점)을 三割減縮(삼할감축)’한 기사에서도 알 수 있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해방 이후 한국에서도 미군을 위한 카바레가 만들어졌으며 그들을 위한 시설 외에는 줄인다는 표현으로 보아 미군을 위한 필요 장소로 인정을 하고 있으면서도 부정적인 유흥 환락가로 국가의 엄격한 단속 장소로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기생도 가무기에 시험을 보혀 자격심사를 하고 카바레 카페 등도 미군인 용 이외는 대폭적으로 주리는 동시에 각료정의 장부를 조사하여 부정이득을 엄벌 할 방침이다 임이 적발된 시내 모요정의 부정액만도 수+(십)만...”<sup>33)</sup>

그리고 1950년대 들어오면서 카바레 광고가 흔하게 신문에 실려 있다. <그림 5>에서 알 수 있듯이 『경향신문』 1958년 3월 22일자에는 같은 면에 새로운 공연을 알리는 ‘고미파’와 신장개업을 홍보하는 ‘동화’의 광고가 나란히 실려 있어 적극적인 영업을 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카바레가 해방 이후 부정적 시각이 존재했어도 공개적으로 광고까지 한 것은 정부가 ‘댄싱홀’이라고 불리던 업소의 업태를 1956년 12월에 변경해 카바레라는 명칭을 붙여 영업을 공인해주는 행정절차를 시행한 것에서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sup>34)</sup> 고미파 광고의 경우 스페인의 춤과 노래를 하는 출연자의 내한 공연을 홍보하면서 롬바, 차

31) 전무길(1936. 1. 30.), 亂舞(난무)의 國際都市(국제도시), 『동아일보』, 제4면.

32) 동아일보 사설(1945. 12. 27.), 風紀肅清(풍기숙청), 『동아일보』, 제1면.

33) 동아일보 기사(1946. 2. 20.), 料理店(요리점)을 三割減縮(삼할감축), 『동아일보』, 제2면.

34) 백운인(2018), p.306.

차차, 삼바, 맘보라고 쓰고 있어 어떤 춤 장르가 주어졌는지 짐작하게 해준다.



〈그림 5〉 카바레 신문광고(1958)<sup>35)</sup>

『경향신문』 1962년 4월 26일자에는 당시 유행 중이었던 박이문이 주기적으로 프랑스의 소식을 알려 주는 글을 연재하였다. ‘巴里通信(파리통신) 「몽마르트르」의 밤’에서는 카바레 몰랑루즈를 소개한다.

“오락이 있는 것은 명동과 같고, 평판이나 나쁜 점은 종로가와 비슷하다. 잠깐 기웃거린 것으로 만족한다. 직접 들어가 보지는 않고 주변을 탐색한 것에 대한 기고, 몽마르트 언덕의 그 주변에는 다 쓰러져가는 귀신딱지 같은 카바레,, , 들어가지 않았다.. 남녀들이 어깨동무하고 술을 마시는가 하면 괴상한 춤- 트위스트 이것은 퇴폐한 풍기도 아니며 망할징조도 아니다”<sup>36)</sup>

박이문의 글에서는 한국 독자들이 그 모습을 연상할 수 있도록 한국 유흥가와 비교해주고 있으며 카바레에서 추어진 트위스트를 괴상한 춤으로 거론하며 한국에서의 부정적인 인식과 다름을 전하고 있다. 『경향신문』 1964년 1월 18일자에서 기획 연재된 기사에서도 카바레를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으며 한국의 카바레의 경우 밴드가 있고 댄스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구의 카바레와 구분됨을 밝히고 있다.

“카바레란 한마디로 말해서 식사를 하면서 음악을 듣고 댄스를 즐길 수 있는 식당을 뜻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밴드가 있고 댄스도 할 수 있는 술집’으로 통하는 것 같습니다. 하긴 이 카바레도 애초에는 선술집이나 우리나라의 주막 같은데서 시작된 것이니 따지고 보면 별 차이가 없는 셈입니다. ...19세기 후반부터 소위 예술적 카바레라는 것이 파리의 몽마르트르, 몽파르나스 등에 나타나 거기서 상송을 부르고 레뷰가 상연되면서 오늘날의 카바레의 성격을 띠게 된 것입니다”<sup>37)</sup>

카바레라는 단어로 신문기사에 실린 내용을 볼 때 한국에는 1930년대부터 서양의 이색적인 장소 카바레가 유학생 등을 통해 소개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일본과 마찬가지로 미군을 위한 군대시설로 인정은 하지만 이 장소로 발생하는 사회문제로 인해 부정적 인식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일본을

35) 경향신문 광고(1958. 3. 22.), 『경향신문』, 제2면.

36) 박이문(1962. 4. 26.), 巴里通信(파리통신) 「몽마르트르」의 밤, 『경향신문』, 제4면.

37) 경향신문 기사(1964. 1. 18.), 카바레, 『경향신문』, 제8면.

통해 카바레가 전달되었다는 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백운인(2018)은 일본의 카바레가 술집에 가깝게 변형되었다면 한국 카바레는 춤을 중심으로 변형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여자 댄서나 접객부가 있다는 것이 두 나라 카바레의 공통점이라고 말한다.<sup>38)</sup> 이것으로 미뤄 볼 때 서구사회에서 유행되었던 카바레는 글로써 소개되었으나 구체적인 운영의 형태의 방식은 일본의 방식이 수용된 것으로 이해될 수 있겠다.

## 2. 다양한 대중매체에서 양산하는 카바레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성공은 1960-1970년대 급격한 경제성장과 함께 도시화를 진행 시켰고 경제적 풍요로움은 본격적인 소비사회로 전환 시켰다. 특히 1980년대 들어서면서 임금상승에 의한 구매력 증대로 인해 그동안 소비과정에서 배제되어왔던 근로자들이 소비시장으로 대거 합류하였다.<sup>39)</sup> 산업화로 인해 도시화가 이루어진 이 시기에 직장인들의 밤 문화가 발전하기 시작했고 술과 함께 춤, 노래를 즐길 수 있는 유흥업소가 빠르게 증가 되었다.<sup>40)</sup> 그런데 한국 전쟁 당시 U.N 연합군의 원조를 받았던 영향은 서양문화에 대한 막연한 환상을 갖게 하였다. 이러한 막연한 환상은 유흥문화에서도 서양의 용어만 차용한 채 본연의 의미와는 다른 형태로 운영되는 스탠드 바, 카바레, 룸살롱 등과 같은 유흥업소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게 하였다. 이렇게 늘어난 유흥업소들의 화려한 네온사인은 한국 도시의 밤 이미지를 만들어 주었다.

1970년부터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중동의 건설 붐이 일어나면서 한국의 많은 남성 노동자들이 파견되었고 남편이 중동으로 간 사이 카바레에서 춤을 추다가 바람난 아내에 대한 뉴스가 심심치 않게 보도 되었다. 당시 드라마, 영화 등에서도 카바레에서 날렵한 춤 솜씨로 여성들을 유혹하는 남성이나 여성에 대한 소재 등을 흔하게 다루었다. 이로 인해 한국의 카바레는 유부녀들의 탈선 공간으로 더욱 강하게 인식되어 졌다. 카바레에서 사용되는 속어도 영화, 드라마 등에서 그대로 사용하면서 우리에게 여과없이 전달되었다. 가장 대표적인 속어는 특별한 직업 없이 유흥가를 전전하며 돈 많은 여성에게 붙어사는 젊은 남자를 속되게 이르는 ‘제비’와 남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금품을 노리는 여자를 속되게 이르는 ‘꽃뱀’이 유행하게 되는데, 이 단어들은 여전히 한국에서 흔하게 사용되고 있다.

『동아일보』 2014년 2월 17일자 신문에는 제비족의 어원의 유래를 전해주고 있는데, 이 기사에 따르면 언론에서 처음으로 ‘제비족’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은 『동아일보』 1967년 9월 19일자라고 밝히면서 그 글을 일부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보통 제비족은 남성에게 수식되는 은어로 알려져 있지만 한국사회에 처음 소개되었을 때에는 여성에게 붙여졌다는 점에서 특이점을 갖는다.

“달콤한 선율, 핑크빛 조명, 그 가운데를 남녀 쌍쌍의 바람이 흐른다. 밤의 서울 8시 카바레(카바레)와 비밀 댄스홀엔, 그때부터 하루 일을 시작하는 사내들이 있다. 웨이터도 아니고 악사도 아니다. 이름을 붙인다면 ‘유부녀 제비족’.”<sup>41)</sup>

38) 백운인(2018), p.306.

39) 김주희(2019), 소외된 신체 공간의 탄생, 『한국예술연구』 24, p.133.

40) 앞의 책, p.133.

41) 우정렬(2014. 2. 17.), 부유한 여성을 유혹하는 ‘제비족’의 어원은..., 『동아일보』,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40217/60925304/1>, 2019. 8. 15.>).

이 기사에서 다른 몇 가지 설을 다시 살펴보면, 첫 번째는 사교댄스를 출 때 남성이 입는 제비 꼬리 모양의 ‘연미복(swallow-tailed coat)’에 기원하였다는 것. 두 번째는 겨울이 되면 따뜻한 강남(중국 양쯔 강 이남)으로 갔다가 봄이 되면 돌아오는 제비에 빗대 1970년대 이후 서울 강남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강남 여성을 유혹하려 몰려든 ‘노는 남자’들을 그렇게 부르게 됐다는 설이다. 세 번째는 제비의 날렵한 몸놀림이 무대 위 남성의 춤동작과 닮아서라든가, 제비의 왕성한 생식력에서 기원했다는 설도 전해진다. 마지막으로 20세기 초 일본의 여권운동가 히라쓰카 라이초(平塚雷鳥, 1886~1971)가 5세 연하의 서양화가 오쿠무라 히로시(奥村博史)와 혼인신고도 안 하고 동거하는 것을 두고 동료들이 손가락질하자 오쿠무라가 ‘조용한 물새들이 사이좋게 놀고 있는 곳에 한 마리 제비가 날아와 평화를 망쳤다. 젊은 제비는 연못의 평화를 위해 날아가 버린다’는 시를 남기면서 일본에선 여성의 나이 어린 애인 또는 정부(情夫)를 ‘제비’로 표현했고, 이 말이 우리나라로 건너와 그 뜻이 일부 변용을 겪어 현재와 같은 쓰임으로 굳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고 있다.

1976년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일반유형음식점’, ‘특수유형음식점’, ‘유형전문음식점’으로 구분되는데, 일반유형음식점과 유형전문음식점의 기준은 무도장(dance hall)의 유무라면 특수유형음식점은 출입하는 손님들의 국적이었다. 한국의 카바레는 서양과는 다르게 춤이 중심이 되는 구조를 지녔기 때문에 유형전문음식으로 구분되었다. 1982년 야간통행금지가 해제되자 유형업소들은 더욱 빠르게 번져 나가게 되었으며 1982년 식품위생법 시행령의 재개정으로 인해 유형전문음식점은 무도유형음식점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이것으로 인해 일반 유형 음식점은 1980년도에 3천 개였던 것이 1990년에는 1만 8천 개로 6배로 증가했고 무도유형음식점은 크게 증가해 1980년도에는 약 369개에서 1990년에는 957개로 3배 증가했다.<sup>42)</sup> 그 결과 한국의 유흥향락 업소는 보다 선정적으로 차별화된 영업방식을 취하게 되면서 여성의 나체를 이용한 각종 변종공연, 성매매까지도 성행되는 불법 공간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카바레와 관련한 기사 수를 살펴보면 1983년에 172건으로 가장 많은 신문 기사를 쏟아내었으며 다음으로는 1990년이 137건으로 많았다.<sup>43)</sup>

업소가 늘어난 것과 비례하여 관련 기사도 늘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 카바레 관련 기사를 가장 많이 실었던 1983년도의 신문 기사를 살펴보면 ‘카바레 毒殺(독살)사건 안개속 推理(추리)만발’<sup>44)</sup>, ‘카바레許可(허가)미끼 巨額詐欺(거액사기) 30代(대)구속’<sup>45)</sup>, ‘毒殺(독살)카바레와 한 건물 디스코클럽에 疑問(의문)의 催淚(최루)가스’<sup>46)</sup>, ‘춤바람 中東(중동)취업자 아내 카바레서 남자유혹 巨額(거액)슬쩍 두 아들 돌보지 않고 카바레만 다녀’<sup>47)</sup>, ‘카바레서 만난 남자 金品(금품)턴 30代(대)부인 둘拘束(구속)’<sup>48)</sup> 등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한 제목으로 기사를 전달하고 있었다.

카바레를 배경으로 하거나 카바레를 무대로 활동하는 제비를 다루는 드라마, 영화 등이 당시에 많이

42) 박정미(2016), 쾌락과 공포의 시대: 1980년대 한국의 ‘유흥향락산업’과 인신매매, 『여성학논집』 33(2), pp.36-38.

43)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 카바레, <<https://newslibrary.naver.com/search/searchByKeyword.nhn>, 2019. 8. 15.>.

44) 경향신문 기사(1983. 3. 26.), 카바레 毒殺(독살)사건 안개속 推理(추리)만발, 『경향신문』, 제11면.

45) 경향신문 기사(1983. 1. 15.), 카바레許可(허가)미끼 巨額詐欺(거액사기) 30代(대)구속, 『경향신문』, 제11면.

46) 경향신문 기사(1983. 3. 29.), 「毒殺(독살)카바레와 한 건물 디스코클럽에 疑問(의문)의 催淚(최루)가스, 『경향신문』, 제7면.

47) 동아일보 기사(1983. 3. 30.), 춤바람 中東(중동)취업자 아내 카바레서 남자유혹 巨額(거액)슬쩍 두 아들 돌보지 않고 카바레만 다녀, 『동아일보』, 제10면.

48) 동아일보 기사(1983. 5. 31.), 카바레서 만난남자 金品(금품)턴 30代(대)부인 둘拘束(구속), 『동아일보』, 제10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대중들의 호기심은 사회적 문제에 대한 우려와는 상반되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1970년대 대표 드라마였던 MBC의 『수사반장』에서는 당시 큰 물의를 일으킨 카바레 춤바람 사건의 내용을 다루었다.<sup>49)</sup> 이 드라마는 라디오에서 텔레비전이라는 새로운 대중매체로 전이되는 과정 중에 가장 인기 있었던 대표 프로그램으로, 실제 사건을 픽션화하여 수사극 형식을 취하고 있는 이 드라마가 기사로만 짐작할 수 있는 카바레 사건을 시각화하였다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급기야 카바레나 제비와 같은 소재는 코메디 소재로 패러디되고 제비족 이미지로 인기몰이를 한 코메디언 박세민이 감독을 맡아 박영규, 박세민 주연의 영화 「신사동 제비」(1989)도 제작되었다. 1994년도에 MBC에서 방영된 한석규, 최민식, 채시라가 주연한 주말 연속극 「서울의 달」은 카바레를 무대로 활동하는 제비족을 소재로 다루고 있다. 「서울의 달」은 최고시청률 48.7%, 평균 40%대의 시청률로 방영 내내 1위 시청률을 기록하며 큰 인기를 얻었다.<sup>50)</sup> 특히 이 드라마에서 카바레 춤 스텝을 가르치기 위해 구령으로 썼던 “서울~대전~부산~찍고, 턴”이라는 말은 유행어가 되었고, 2016년에는 이필모, 박성훈 등이 주연을 맡아 뮤지컬로도 제작되어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되었다. 이 드라마는 서울의 빈부의 격차와 등장인물들의 한탕주의, 속물주의적 속성을 그대로 담고 있다. 드라마 안에서 춤은 주인공 홍식(한석규)의 욕망을 이뤄주는 수단이 되며 그 모습은 유행어와 함께 영상으로 형상화되어 대중들에게 전달되었다.

2010년 6월 5일자 『국민일보』에서도 『선데이서울』, 오락 프로그램 「쇼쇼쇼」, 신사동 카바레, ‘드라마 「전원일기」’ 등을 20세기 한국 문화 아이콘으로 선정하고 있어 당시 대중들에게 카바레가 얼마나 크게 인식되었는지를 뒷받침해 준다. 따라서 사회문제를 발생시키는 불법의 공간으로 카바레를 전달하는 신문, 뉴스 등의 기사들과 함께 드라마, 영화 안에서도 이야기의 사건을 발화시키는 장소의 소재로 흔하게 활용되면서 한국의 카바레는 서구사회에서 저항과 자유, 실험의 무대로 제공되었던 예술 공간과는 다르게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 IV. 결론

서구사회에서 아방가르드 예술운동을 이끌었던 카바레라는 문화예술 공간이 한국에서는 어떻게 퇴폐적 춤 공간으로 인식되었는지 알아보는 것에 연구의 목적이 있었다. 이에 주요 국가들의 공연 특징을 사진, 영상, 문헌자료 등을 통해 정리해 보고 한국의 카바레가 사교춤을 추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다다이스트들의 춤의 무대가 돋보였던 카바레 볼테르의 춤 공연을 함께 살펴보았다. 그리고 한국의 카바레가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된 요인으로 일본의 유흥문화와 미디어가 작용했을 것이라는 가정 아래에 논의를 전개하였다.

그 결과 각 나라의 대표적인 카바레의 특징은 프랑스 ‘검은 고양이’의 경우 즉흥성이 돋보이는 사회 비판적 논의 공간의 초석이 되었던 무대였으며 독일의 ‘다채로운 극장’은 완성된 텍스트를 기초로 전통

49) 이정호(2018.12.17.), 드라마 위기는 콘텐츠 위기, 『피디 저널』, <<http://www.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9378>, 2019. 8. 15.>.

50) 위키피디아, <[https://ko.wikipedia.org/wiki/%EC%84%9C%EC%9A%B8%EC%9D%98\\_%EB%8B%AC](https://ko.wikipedia.org/wiki/%EC%84%9C%EC%9A%B8%EC%9D%98_%EB%8B%AC), 2019. 8. 15.>.

적 사고방식과 시대에 뒤떨어진 도덕관을 비판하였고 패러디 성향이 강한 작품을 선보였다. 그리고 오스트리아의 '사랑하는 아우구스틴을 위한 젊은 빈 극장'은 가벼운 유머가 중심을 이루는 카바레 문화를 형성하였다. 다다이즘의 본격적인 창구가 된 스위스의 '카바레 볼테르'는 실험적이며 저항적 무대를 주로 선보였으며 관객들의 참여와 예술 장르 간의 공동작업을 주로 추구하였다. 특히 카바레 볼테르의 춤 공연은 기본 발레와는 구분되는 춤으로 장르 간의 소통의 방식과 얼굴의 감정을 배제한 거울 식의 마주보기 움직임으로 구성된 무대를 선보였으며 아프리카 원주민 이미지, 흑인 무용수, 아프리카 의상을 입어 금기되었던 문화를 대항적으로 올리는 실험무대를 선보였다.

이러한 서양의 카바레는 일본과 한국 등에도 생겨나게 되었다. 한국에서 카바레를 다룬 초기 기사를 살펴보면 서양의 이색 공간으로 소개하고 있었지만 카바레로 인해 초래되는 사회문제를 실은 기사가 1945년에 실린 이후 다음 해에는 미군용을 제외한 다른 카바레를 대폭 축소해야 함을 촉구하고 있었다. 여기서 미국 군인을 위한 카바레가 있었다는 점은 한국의 카바레가 일본의 영향을 받았다는 가설을 부분적으로 뒷받침해 준다. 일본 사회에서 카바레라는 단어가 각인되게 된 계기는 패전 이후 주둔한 미군을 위해 일본 정부가 직접 나서서 만든 위안시설 안에 춤추는 장소를 카바레라고 부르면서 시작되었다. 일본의 카바레는 서구사회의 카바레와는 다르게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작용하여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결국 춤추는 장소를 카바레로 명칭하였다는 점에서 일본의 경우 서양의 카바레와는 다르게 다양한 문학 및 공연 등의 예술 면모는 모두 사라지고 향락적인 춤 공연과 춤을 출 수 있는 공간만 남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일본의 카바레 문화의 영향으로 인해 초기의 한국 카바레는 미군의 유흥을 위한 춤 공간형태로 존재하게 되었다.

이후 카바레와 관련된 기사들이 끊임없이 실리는데 그 중 1960년대의 기사를 보면 서양의 카바레와 한국의 카바레가 다른 형태임을 알려주는 기사가 간혹 나오기는 하나 대부분은 부정적인 기사로 다루고 있다. 특히 1970년대 이후 소비문화가 확산되자 유흥업소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카바레와 관련된 사회적 문제들도 늘어나게 된다. 대중들의 호기심을 반영하듯 카바레를 배경으로 소재로 한 드라마, 영화, 코메디 프로그램까지 인기 끌면서 카바레를 부정적 춤 공간으로 시각화하여 대중들에게 구체적으로 전달해주는 대중 영상매체들이 영향을 미쳐 한국의 카바레는 더욱 퇴폐 춤 공간으로 고정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국내 카바레 연구의 한계 부분을 다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각 나라의 카바레 춤을 구체적으로 비교해 상이하게 형성된 특성과 맞닿아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갖는다. 또한 최근의 한국의 카바레가 노인 여가문화 공간으로 대체되고 있는 현상과 서울문화재단이 마포문화비축기지에서 개최했던 '서커스 카바레'를 함께 살펴본다면 점차 다르게 수용 발전되고 있는 한국의 카바레 면모를 이해할 수 있는 자료가 마련될 것이라 생각되어 이러한 부분들을 추후 연구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 ■ 참고문헌

- 리사 아피나네시(1975). 『카바레-새로운 예술 공간의 탄생』. 강수정(역). 서울: 에코리브르. 2007.
- 백운인(2018). 『번안사회』. 서울: 휴머니스트.
- 정민영(2007). 『카바레-자유와 웃음의 공연예술』. 서울: 유로서적.
- Schneider, Rebecca(1997). *The Explicit Body in Performanc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김주희(2019). 소외된 신체 공간의 탄생. 『한국예술연구』, 24: 129-150.
- 박은정(2014).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나타난 ‘카바레 송’의 분석과 연주적 해석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박정미(2016). 쾌락과 공포의 시대: 1980년대 한국의 ‘유흥향락산업’과 인신매매. 『여성학논집』, 33(2): 31-62.
- 정민영(2004). 독일어권 카바레 연구(1)-카바레의 개념 및 발달사. 『브레히트와 현대연극』, 12: 343-361.
- \_\_\_\_\_ (2005). 독일어권 카바레 연구(2)-카바레의 구성과 기능. 『브레히트와 현대연극』, 13: 219-240.
- 정현경(2014). 예술장르로서의 카바레 연구. 『세계문화비교연구』, 48: 271-294.
- 조수진(2014). 미래주의, 다다 퍼포먼스에 나타난 바리에테와 카바레의 문화정치. 『현대미술사연구』, 40: 177-208.
- 피종호(2004). 다다이즘과 추상적 해체예술의 이미지. 『카프카연구』, 11: 299-314.
- 경향신문 광고(1958. 3. 22.). 『경향신문』, 제2면.
- 경향신문 기사(1964. 1. 18.). 카바레. 『경향신문』, 제8면.
- 경향신문 기사(1983. 1. 15.). 카바레許可(허가)미끼 巨額詐欺(거액사기) 30代(대)구속. 『경향신문』, 제11면.
- 경향신문 기사(1983. 3. 26.). 카바레 毒殺(독살)사건 안개 속 推理(추리)만발. 『경향신문』, 제11면.
- 김도형(2011. 8. 14.). 일본, 패전하자마자 위안부 모집했다.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491661.html>, 2019. 8. 15.>.
- 김중겸(2018. 4. 14.). 일본, 자국민도 미군에 위안부로 팔아넘겨. 『더 아시안』, <<http://kor.theasian.asia/archives/186805>, 2019. 8. 15.>.
-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 카바레, <<https://newslibrary.naver.com/search/searchByKeyword.nhn>, 2019. 8. 15.>.
- 도유호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207051&cid=40942&categoryId=39766>, 2019. 8. 15.>.
- 도유호(1930. 9. 2.). 歐洲行(구주행) (一(일)) 印度洋(인도양)건너서서. 『동아일보』, 제3면.
- 동아일보 사설(1945. 12. 27.). 風紀肅清(풍기숙청). 『동아일보』, 제1면.
- 동아일보 기사(1946. 2. 20.). 料理店(요리점)을 三割減縮(삼할감축). 『동아일보』, 제2면.
- 동아일보 기사(1983. 3. 30.). 춤바람 中東(중동)취업자아내 카바레서 남자유혹 巨額(거액)슬쩍 두

아들 돌보지 않고 카바레만 다녀. 『동아일보』, 제10면.  
 동아일보 기사(1983. 5. 31.). 카바레서 만난 남자 金品(금품)턴 30代(대)부인 朶拘束(구속). 『동아일보』, 제10면.  
 박이문(1962. 4. 26.). 巴里通信(파리통신) 「몽마르뜨르」의 밤. 『경향신문』, 제4면.  
 이정렬(2014. 2. 17.). 부유한 여성을 유혹하는 ‘제비족’의 어원은…. 『동아일보』,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40217/60925304/1>, 2019. 8. 15.>.  
 이정호(2018. 12. 17.). 드라마 위기는 콘텐츠 위기. 『피디 저널』, <<http://www.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9378>, 2019. 8. 15.>.  
 서울의 달 위키피디아. <[https://ko.wikipedia.org/wiki/%EC%84%9C%EC%9A%B8%EC%9D%98\\_%EB%8B%AC](https://ko.wikipedia.org/wiki/%EC%84%9C%EC%9A%B8%EC%9D%98_%EB%8B%AC), 2019. 8. 15.>.  
 전무길(1936. 1. 30.). 亂舞(난무)의 國際都市(국제도시). 『동아일보』, 제4면.  
 한겨레 필진 네트워크(2007. 3. 27.). 팡팡걸, 양공주, 아베.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99042.html](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99042.html), 2019. 9. 9.>.  
 샤느와르 광고 그림. <[https://en.wikipedia.org/wiki/Le\\_Chat\\_Noir](https://en.wikipedia.org/wiki/Le_Chat_Noir), 2019. 8. 15.>.  
 카바레 볼테르 광고 그림. <[https://en.wikipedia.org/wiki/Cabaret\\_Voltaire\\_\(Zurich\)](https://en.wikipedia.org/wiki/Cabaret_Voltaire_(Zurich)), 2019. 8. 15.>.  
 소피 타우버 그림. <<http://artjournal.collegeart.org/?p=4680>, 2019. 8. 15.>.  
 \_\_\_\_\_ . <<https://frieze.com/article/mad-world-0>, 2019. 8. 15.>.  
 카바레 볼테르 춤 공연 영상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fkl92oV1kMc>, 2019. 8. 15.>.

논문투고일 2019. 8. 15.  
 심사일 2019. 8. 20.  
 심사완료일 2019. 9. 11.

## A Bizarre Dance Space in the City

– Focused on ‘Cabaret’ of Korea –

**Kim, JooHee**

Research Professor, SungKyunKwan University

Cabaret led 20th century Dadaism but was recognized as a decadent dance space in Korea. This article aims to trace the process of how cabaret has been recognized as an illegal dance space. Cabaret was a total art space where various media, including dance, singing, poetry, performances, paintings, and plays, co-existed mainly in Germany, Austria, and Switzerland. However it was transformed into Kabakure (キャバクラ) in Japan. In Japan, it became a new entertainment place, not a stage for avant-garde artists. In Korea, it came as the form of entertainment places under the influence of Japan. The pronunciation of cabaret changed to cabaret because of the influence of Japan, and it settled as a dance space for adults over 50. In Korea, while granting many licenses for such entertainment establishments during the military dictatorship, government cracked down these at the same time, pushing them further into the city. Eventually, cabaret became recognized as an illegal, decadent, and weird dance space in Korea.

**Keywords:** Cabaret(카바레), Kabakure(카바쿠레), Dadaism(다다이즘), Dance space(춤 공간), City(도시)